

일본에는 작은 농업이 적합하다

이시가와(石川)현 니시다에이키(西田榮喜)
편집실

■ 오스트레일리아의 대규모 유기농업이 놀라웠다.

필자가 농가가 된 직접적인 이유는, 서비스업의 관점에서 보면 농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업을 한다면 작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이유는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농지나 기계, 작업장, 특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영농을 하기에는 대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독립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팜스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농장은 유기농업을 하고 있었지만, 상상하던 유기농업과는 차원이 달랐다. 자재는 어분 등 일본에서도 친근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비의 방법이었다. 어분과 유기자재를 헬리콥터로 뿌리고 있었다(냄새가 대단하였다).

그리고 그린피스(청완두) 수확은 폭이 약 20M정도나 족히 되는 수확기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단한 것은 그 시스템이었다. 수확기계를 전문가들이 소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였다. 농가는 키우기만 하면 된다. 농가들과 계약을 맺어 최종 수확은 맥도날도가 하고 수량에 따라 농가별로 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농지의 대규모화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시스템까지 생각하면, 대형화라는 면에서는 대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 일본 같이 직매에 적합한 국가는 없다.

그러던 중 미니멈(minimum)주의의 힌트를 준 것이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농가였다. 일본의 겸업농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러한 일은 우리들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도시까지 편도로 3시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안정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라고.

생각해보면, 일본은 어디서라도 차로 30분정도 달려가면 인구 1만명 정도의 지역이 있어, 각현에서는 현청소재지를 시작으로 도시가 흩어져 있다.

인터넷판매를 하여도, 일본에서는 발송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에 전국 어디라도 대부분 도착하는

간편함이 있다. 거기다 인구도 많다. 이러한 농업환경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메리트(장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직매, 또는 직매소 농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 작은 농업이야말로 글로벌화에 대항할 수 있는 최대의 힘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TPP(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이다. 농업에 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농업의 글로벌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논평도 있다. 이러한 때에 좋은 사례가 되는 나라가 네덜란드이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물 수출액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다. 평론가들은 “일본도 네덜란드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좋은 의견이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등은 배울점이 많지만, 그것이 수출을 해야 하는 것과는 별문제이다. 왜냐하면, 먼저 인구수가 다르다. 네덜란드는 약 1700만명으로 세계 62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약 1억2천 700백만으로 세계10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고급과일, 브랜드 농산물 등 세계의 부유층을 향한 수출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산물의 대부분은 보통 먹는 것이다.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해,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 먼저 내수확대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식료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환경부담도 적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가의 리스크 경감에도 연결이 될 것이다. 농업 문제는 경제문제보다 원래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말을 하여도 국가의 정책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다행히 일본에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 핵심중의 하나가 “전문농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 됨됨이를 점점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글로벌화, 대형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진다. 작기 때문이야말로 개성이나 개인의 사고방식이 나타나, 이것이야말로 글로벌화에 대항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소량다품목가족경영」이아말로 세계의 최첨단 농업



▲ 여름에 수확한 채소들. 이러한 채소를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좋은점.

「행복한 경제학」이라는 영화에서, 이전에는 번성했던 거리가 세계규모의 자동차회사가 떠나간 후, 유명도시화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절망이 퍼졌지만, 주민들의 자급자족형 가정원예를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희박하였던 인근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고 서로 돕는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소량다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파머스마켓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현재 글로벌화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이러한 소량다품목 직매농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참고로 하는 것이 일본의 초기 유기농가라고 한다. 작은 직매, 또는 택배. 그것이 행복한 모습으로 영화에 그려지고 있었다. 대규모 단일농가보다 소량다품목 농가쪽이 면적당 수입이 많다는 데이터도 있다.

호들갑인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세계의 최첨단 농업 스타일은 「소량다품목 가족경영농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데 일본은 대단히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 밀집지역이 가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㉞

편집자 주_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4년 7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GS보너스 카드 사용 독려

우리협회와 GS칼텍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급한 농기협 노블리스카드(GS 보너스카드) 사용 독려하오니 협회와 연합회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바랍니다.

◆ 사용방법 : GS칼텍스에서 주유 또는 충전 후 평소 결제하는 대로 하면서 위의 보너스카드를 제시하여 적립요청

GS 보너스카드 혜택 및 활용

- ① 사용자에게 리터당 10원 할인 + 5원 적립
- ② 본회에 리터당 15원 적립 → 이중 10원은 지역조직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됨

노블리스 카드 사용법

- ① 개인별 ARS(1544-5151)나 인터넷에서 간단히 등록(카드 앞면에 부착된 태그 참조)
- ② 등록자별 월600리터, 1일 3회 한도로 사용 가능
- ③ 사용기간 : 2015년 03월 31일까지 (* 추후 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④ 셀프주유소에서는 카운터에서 선결제 및 할인을 받은 후에 주유하시기 바랍니다.